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현황과 전망

유 중 현
본회 산업전자과장

1. 머리말

'95년 한해는 향후 우리나라 통신기기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 한 해였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개척자로 출발한 케이블TV 방송개시, PCS 등 7개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계획 발표, 위성방송 실시를 위한 무궁화위성 발사 등 통신기기 수요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었다.

또한 '98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개방안(양허계획서)이 WTO 기본통신 협상테이블에 제출된 해이기도 하다.

'96년 올해에는 전 산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7개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규서비스 사업자가

선정되고,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이 실시되며, 60여개 지역에 CATV방송국이 신규로 허가된다. 또한 CDMA(코드분할다중 접속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실시되며, WTO 기본협상 계획에 따라 기본통신협상이 4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날로그 통신기기의 수요 한계로 '94년에 비해 0.8% 감소한 1,498억불로 전망되며 이중 유선통신기기 시장은 1.6% 감소한 640억불, 무선통신기기 시장은 1.1% 증가한 858억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6년에는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등 디지털 통신기기 시장의 활

세계통신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구 분	'95	'96	'97	'98	'95/'98
통신기기 (증가율)	1,498 (-0.8)	1,542 (2.9)	1,577 (2.3)	1,601 (1.5)	2.2
유선통신 (증가율)	640 (-1.6)	648 (1.3)	654 (0.9)	656 (0.3)	0.8
무선통신 (증가율)	858 (1.1)	894 (4.2)	923 (3.2)	945 (2.4)	3.3

자료 :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e, 1995.

2. 세계 통신기기 동향

'95년 세계 통신기기 시장은 아

성화에 힘입어 '95년에 비해 2.9% 성장한 1,542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선통신기

지역별 통신기기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구 분	'95	'96	'97	'98	'94/'95	'95/'98
미 국	677	697	711	718	-2.6	2.0
일 본	213	220	228	236	2.7	3.5
유 럽	398	405	410	414	1.1	1.3
아 시 아	350	363	375	387	2.3	3.4
계	1,498	1,542	1,577	1,601	-0.8	2.2

자료 :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5.

국내 통신시장 동향

(단위 : 억불, %)

구 분		'94	'95	'96	증 가 율	
					'94/'95	'95/'96(평균)
수 요	수 출	1,954	2,292	2,918	17.3	27.3
	내 수	3,236	4,614	6,020	42.6	30.5
시 장 계		5,190	6,906	8,398	33.1	29.4
공 급	생 산	3,679	5,065	6,534	37.7	29.0
	수 입	1,511	1,841	2,404	21.8	30.6
수 출 비 중		37.7	33.2	32.7	-	-
수 입 비 중		29.1	26.7	26.9	-	-

- 주) : 1) 수출·수입은 관세청 통계이며, '95수치는 12월 까지의 잠정수치임.
 2) 생산·내수는 전자산업진흥회 11월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
 3) '94년 평균환율 1\$: 804원, '95·'96년 1\$: 771원 적용(이하 같음)

기는 '95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년평균 3.3%의 성장이 전망된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세계최대 통신기기시장으로 '95년에 수량측면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액면에서는 가격하락 등으로 2.6% 감소한 677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의 경우에도 교환 및 전송 장비 시장의 수요 포화로 1.1%의 낮은 성장이 예측된다.

반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통신기기 수요 확대로 전년에 비해 2.3%

성장한 350억불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도 PHS 장비 및 단말기 시장 확대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2.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통신기기 동향

국내 시장은, '95년에는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케이블TV 방송실시에 따른 관련기기의 수요 증가로 전년에 비해 약 33%로 고성장 68억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신규 또는 기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대거 허가와 기존 통신정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추진 등으로 약 30%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이동전화기의 경우는 가입설비비 폐지(65만원), CDMA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 실시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단순 버튼식 유선전화기의 경우는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다각적인 활성화 사업을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내수의 한계와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생산, 시판, 수출 모두 감소를 보였다.

반면 코드리스 유선전화기는 900MHz 대역의 내수 시장의 활성화와 DSP 내장 등 다양한 기능의 제품 출하 등으로 올해에는 약 14.2%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설전자교환기의 경우는 가격의 하락과 내수 한계 등으로 작년 이어 올해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설교환기의 경우는 작년에 비교적 높은 12.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올해에는 2.4%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팩시밀리의 경우는 엔고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린 품목으로 '95년 생산, 수출이 전년에 비해 각각 17.6%, 27.2% 증가를 보였으나, 국내 시판은 업무용의 수요한계로 9.9%의 감소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 통신기기 시장 동향

(단위 : 생산·시판은 억원, 수출 : 백만불)

구 분	생 산		수 출		시 판	
	'95	'96	'95	'96	'95	'96
전 화 기	4,483 (0.4)	5,066 (13.0)	200 (10.7)	270 (35.0)	2,115 (-18.0)	2,007 (-8.7)
버 튠 식	1,545 (-10.3)	1,573 (1.8)	69 (-6.1)	71 (2.7)	641 (-22.3)	563 (-12.2)
코드레스폰	2,820 (4.4)	3,221 (14.2)	129 (21.9)	144 (11.6)	1,453 (-16.4)	1,366 (-6.0)
교 환 기	5,104 (11.1)	5,334 (3.6)	74 (2.2)	77 (4.2)	4,564 (8.4)	5,273 (-13.0)
국 설	4,742 (-4.1)	3,756 (-15.4)	46 (9.6)	47 (2.4)	3,450 (-8.2)	3,834 (-33.8)
사 설	784 (12.5)	823 (2.4)	28 (-8.0)	31 (11.5)	580 (28.8)	711 (11.6)
팩 시 밀 리	4,305 (17.6)	4,978 (15.6)	325 (27.2)	387 (19.0)	1,550 (-9.9)	1,458 (-5.9)
이 동 전 화 기	10,026 (171.1)	12,809 (27.8)	508 (35.2)	586 (15.3)	2,312 (243.9)	3,881 (67.8)
무 선 호 출 기	1,509 (28.9)	1,867 (23.7)	39 (226.7)	78 (100)	896 (16.8)	1,092 (21.9)
위 성 방 송 수 신 기	1,320 (-20.0)	1,510 (14.4)	137 (-21.1)	186 (35.9)	71 (-30.0)	61 (-14.1)

'95년 이동전화기의 경우는 작년에 세계적인 가입자 증가와 가격인하 및 다양한 신제품의 출시로 생산, 수출, 시판이 전년에 비해 각각 11.6%, 35.2%, 243.9%의 고성장을 보였다.

올해에도 내수의 경우는 가입설비비 폐지, CDMA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 실시 등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호출기의 경우도 작년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수출의 경우는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로 전년에 비해 226.7%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올해에도 수출의 경우는 중국 등 동남아 시장의 확대로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방송수신기의 (SVR)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공급국이나 작년의 경우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주요시장의 수요한계와

디지털 방식으로의 서비스전환에 대한 대응 미흡 및 아날로그 제품의 가격하락(후발국 추격 등)등으로 큰 감소를 보였다.

올해에도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의 실시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상용화 서비스 시기와 디지털 DBS 등 관련기기 국산화가 관건이다.

'95년의 통신기기 수입도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93년 대비 '94년의 63.7%의 수입 증가보다는 상당히 둔화된 21.9%를 나타냈다. 특히 유선통신기기는 56.2%의 수입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는 CATV용 컨버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동전화기의 경우는 244%의 국내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94년 대비 18.7% 증가에 그쳤는데 이와같은 증가율은 '93년 대비 '94년 증가율 109.5%에 비해 현격히 둔화된 수치이다.

무선호출수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 수신기는 전년에 비해 35.1%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무선호출기기 생산업체들의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에 의한 경쟁력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국내의 통신산업 환경

작년에 정보통신부에서 오는 '98년부터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개방안(양허 계획서)을 확정 WTO 기본통신 협상 테이블에 제출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98년부터 국내에 법인만 설립되면 개인휴대통신(PCS), 무선데이터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통신서비스, 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 등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음성전화(시내/시외/국제),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전신, 팩시밀리 등의 유선통신서비스 사업도 외국인에게 허용된다. 사업자 수도 가용주파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며 서비스방식은 회선임차방식과 설비보유방식 등이 포함된다. 단, 국내 법인 설립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분도 현재까지는 이동통신분야만 3분의 1까지 허용되었으나, '98년부터는 유무선 모두 33%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대주주 금지제한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양허 내용은 우리에게서 커다란 시련을 주는 내용들이라 하겠으나,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 보다 훨씬 더 개방된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할 것이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나라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선진 주요국들의 개방요구 내용을 보면, 미국의 경우는 기본통신분야의 사업자수 제한 및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외국인의 사장, 이사 취임 제한 등 내국민 대우 차등폐지/재판매 사업 허용/허가기준, 면허신청·부여 등의 공시 및 공정한 의견진술 부여/일괄구매 강요 금지, 원가에 근거한 접속료 제도 등 공정하고 경제적인 상호접속/국제 통신사업자의 정산요율 공개/보편적 서비스기금의 공정한 운영/공정경쟁장치 마련/규제기관의 효율적 독립화/한국통신의 공정경쟁 보

장을 위해 회계분리망 공개 등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재판매 전면자유화/CATV 서비스 공급자의 전화서비스 허용/이용자의 위성지구국 설치 허용/국제위성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참여 허용/진입허가 및 허가갱신 심사기준의 명확화/형식승인 유효기간 폐지/공중통신망에 접속되지 않는 국제 기본통신서비스를 재판매 베이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EU는 기본통신서비스에 외국인 지분제한 및 내국민 대우 보장/공중전화시장 완전 자유화/단순 재판매(국내, 국제) 완전 자유화/기본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 재판매 허용/허가 절차 기준 및 조건들의 객관성, 투명성, 비차별성 보장/비차별적인 경쟁사업자 상호접속(동등접속 포함)/보편적 서비스관련 의무는 비차별적, 투명, 객관적/각종 요금제도의 원가 지향적 원칙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 상반기에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 무선통신, 국제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사업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자 허가를 올 상반기에 확정, '98년 통신 개방에 대비코자하나 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도 '9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국내 통신기기 수입 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94	증가율	'95	증가율
통신기기	1,510,610	63.7	1,841,275	21.9
유선통신기기	378,072	85.1	590,689	56.2
광전송장치	44,601	512.2	45,300	1.6
교환기용부분품	15,769	-29.3	33,428	112.0
기타반송통신기기	104,779	212.3	218,410	108.4
기타유선통신기기부분품	131,191	126.8	192,982	47.1
무선통신기기	1,132,538	57.6	1,250,586	10.4
이동전화기	250,305	109.5	297,037	18.7
기타의수신기	340,726	140.1	221,329	-35.1
레이다, 항행용무선기기	67,215	22.6	108,953	62.1
기타무선통신기기부분품	213,791	1.7	298,668	39.7

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1단계 사업인 지역별 통신망 구축이 '97년도 완료될 예정이며 5대 도시간 2.5Gbps-수 Gbps 전송로 구축인 2단계 사업이 2002년, 광대역 멀티미디어의 통합된 망구축인 3단계 사업이 2010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초고속 공중통신망 구축 사업도 '9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단계 사업인 서울, 대전간 광케이블 기간망 구축이 '97년에 완료되며, 서울, 대전간 기간망의 초고속화 사업이 2단계 사업으로 2002년에, Tbps급 전송로 및 교환능력 확보 완료가 3단계 사업으로 2015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케이블 TV 60여개 지역에서 신규로 허가될 예정으로 있고 또한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5. 국내 통신산업 발전 방안

국내의 주변 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세계적인 통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당면(단기)과제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WTO 기본통신협상시 최대의 국내 내수시장과 국내 제조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의 통신산업은 선진국에 대한 커다란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장애없이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소유한 외국 업체들의 국내 진출시 시장 잠식은 물론 기술 종속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상대국가의 요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도의 통상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일괄성 있는 시책, 업계가 예측할 수 있는 시책을 들 수 있다.

선진국의 일방적인 요구나 세계적으로 실험되지 않은 서비스/기술 방식의 채택 등은 국내 통신기기 제조업체 및 서비스 업체의 의견이 꼭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각종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은 명확한 선정기준과 일정을 제시 업계의 혼란을 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방에 앞서 내수시장 강화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불필요한 제도의 개정,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거론한 바 있지만 '98년부터는 점진적 개방을 양 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개방 이전에 국내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제도나 행정규제는 과감히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이동전화기 이용시 정부에서 부과하는 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비 7만원, 가입보증금 2십만원, 기본 이용요금 22,000원, 무선국 허가 신청료 15,000원, 면허세 27,000원(매년납부), 기술기준확인 증명 수수료

11,000원, 정기검사료 24,000원(5년마다), 장치비 27,000원(차량용) 9,000원(휴대용), 전파사용료 12,000원(분기당)등 7가지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와같은 다수 종류의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느 선진국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내수 수요 창출을 저해하는 행정규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기술개발 및 표준화·공용화 추진이다. '94년도 1,498억불의 세계 통신기기 시장중 우리의 생산은 약 2.6%인 37억불에 그치고 있고 이 금액 또한 외국 기술 및 부품의 도입에 의해 제조된 제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자체기술 없이는 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신규통신서비스의 출현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수출시장도 선진 기술보유국에 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존 생산제품 중 각사 제품별 기능이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업체간에 표준화 규격을 제정, 공용화함으로써 제조원가의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입 사용하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동종업체간 단일 규격을 제정, 개발한다면 개발비용과 제조원가를 절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